

여성농업인 리더의 생애경험을 통한 심리적 장애요인에 관한 소고

김경미 · 이진영 · 최윤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 Pilot Study of Rural Women Leader's Psychological Trap for Getting Some Informations to Reinvent One's Life

Gyung Mee Gim · Jin Young Lee · Yoon Ji Choi

Researcher,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DA

Abstract

This is a pilot study on rural women's psychological trap to define some obstacles to self directed learning. During few decades, according to major crop of each farm household has shifted from rice to other crops like as vegetables, fruits, horticultures, livestock, etc., women's role or labor sharing of women in farming has been also increased. Although women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till now, there is no a research or an approach to rural woman on the view of individual human being.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woman's behavior or attitudes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 at each person's experiences.

For this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3 women leaders who participated in a training course in 2005, through the scale of Jeffrey E. Young & Janet S. Klosko which was developed to improvement of one's repetitious behavior based on cognitive psychological care. It was categorized into 11 types of psychological trap of one person, named as follows; ① trap of being deserted by someone ② trap of disbelief and being ill-treated ③ trap of weakness ④ trap of dependence ⑤ trap of emotional deprivation ⑥ trap of feelings of alienation among society ⑦ trap of deficiency ⑧ trap of anxiety to failure ⑨ trap of subordination ⑩ trap of the merciless standard by self-estimation ⑪ trap of the sense of privilege.

From the data, the average age of subjects was 52.8years old, and the educational back of subjects was higher than general rural women. In both of the trap of weakness and the trap of the merciless standard by self-estimation, the ratio of over and 4 point score of 6 points was 71.4% and 76.2%. It means most of subjects have experienced fear of unexpected calamity(trap of weakness), and mental press hard for efforts to meet one's ideal standard(trap of the merciless standard by self-estimation). Especially the trap of the merciless standard by self-estimation may have relation with rural women's over burden from farming and local society activities.

Key words: Rural Women, Leader, psychological trap, reinventing one's life

I. 서론

농가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은 53%(통계청, 2004)에 이르는 등 농가의 여성노동력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가의 가족노동력 중 부부노동력 비중은 87.8%로 절대다수가 부부노동력 중심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핵심 노동력이며, 농업과 농촌의 주요 인적 자원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농촌개발의 주요 사업으로 투입되는 농촌관광, 농산물의 가공 판매,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반면에,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그들의 짐을 나누어줄 동료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¹⁾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혹은 여성농업인이 관여하는 사업들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이지 여성들 자신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여, 여성농업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묻혀왔던 대다수의 여성이, 혹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조직체 안에서 뭉뚱그려져왔던 개별 가족원이 각각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점차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경향²⁾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다. 농촌사회는 도시와는 달리 생산의 공간인 농업과 생활의 공간인 가정, 일상생활의 공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 주체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 삼중의 벽 속에 있는 것이 된다. 이는 농촌사회가 '옆집 밥숟가락 수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대인관계가 밀접하고 조밀하게 접촉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대다수 대외적인 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과 농사현장(논, 밭)과 마을 사이를 바쁘게 오가면서 일과를 소화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라는 개별 주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와 공간과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생활시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의 감소가 수입노동 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³⁾에서도 잘 보여준다.

국제통계연구소(www.wedo.org/ehealth/berlin_appa.htm)의 여성평등지표(GEI: Gender Equality Index)에서는 10대 지표 중의 하나로 시간 지표를 매우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시간 자원 활용의 균형성이야말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여성이 자신에게 속한 자원의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표에서는 더 나아가 레저와 수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확보는 바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여성의 자기 계발에 대한 재투자과 자기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충분히 사회문화적 여가를 즐길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영농교육 및 문화 교양강좌 등에 충분히 접근할 환경에 있는가 등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학습을 통해 자기 성취 및 자기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지원할 환경, 즉

1) 이에 관하여는 최근 여성농업인 또는 농촌여성 관련 연구논문들을 참조.
 2) 이에 관하여는 여성학 관련 서적, 울리히 벡 부부 등의 문헌들을 참조.
 3) 이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농가 부부 생활시간 구조 분석 자료들을 참조.

도서관 등의 접근성도 충분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농업인들도 도시의 전업주부들처럼 힘든 일들 속에서 자신만이 퇴보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김경미 등, 2004).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불평등한 경험들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거나 포기하고 마는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김경미, 2006). 이와 같은 현상은 부정적 경험의 반복학습을 통한 내재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⁵⁾이라고 설명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Jeffrey E. Young & Janet S. Klosko가 자신들의 임상실험적인 결과들을 유형화하여 사람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물(번역서의 명칭으로는 인생의 덫)을 11가지로 분류하였고, 이 특성들에 따라 성격과 행동의 특성을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각 개인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실험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촌이라는 짜여진 구조 안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을 개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정보망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될 수 있다(김경미, 2006).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생애에서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들이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중요한 tool 인 것으로 판단되어 한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교육에서 활용하여 측정해본 결과이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들이 자신들의 생애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심리적 장애기제가 무엇인가를 Jeffrey E. Young & Janet S. Klosko 모형으로 측정해봄으로써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05년 11월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여성농업인단체 임원들 23명을 대상으로 Jeffrey E. Young & Janet S. Klosko 가 제안한 11가지 심리적 장애유형을 판단하기 위하여 22개 문항(어린시절 및 현재의 두 단계로 평가하도록 설계된 질문지)으로 구성된 질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23명의 자료를 SPSS/win ver.12.0 프로그

-
- 4) 여성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여성의 53.3%가 잡다한 일 속에서 나만 퇴보한다는 느낌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으며,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여성은 73.3%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사과농가 여성은 64.5%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장미재배농가에서는 31.0%로 낮았는데, 이는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시간과 존재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적은 것은 남편인 남성의 연령도 젊은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일수록 상대적으로 각자의 발전을 위한 일상생활의 협력과 협의가 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5) 농촌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대개의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즉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거나 사생활이 전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에 의해 자신의 본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거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나서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순응해가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논문이나 문헌을 빌지 않고서도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나 여성농업인 대표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 여성이 마을 이장을 맡고, 농촌에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장년층의 남성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게 되면서 마을회의 등에서 여성의 발언수위나 의사결정 참여도가 늘어나는 현상도 발견되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와 t-검정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자신의 심리적 장애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거울에 비친 자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눈에 비치는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에노모토 히로야키 지음, 신정길 등 옮김, 2005). 이처럼 자신의 심리적 장애에 대하여 파악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자기상을 선명하게 갖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자기상이 선명한 사람은 타인과 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도성을 발휘하게 한다.

알리자 셔먼(이미숙 옮김, 2004)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변화에 삶과 일을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늘 농사일과 가사일, 지역사회 일⁶⁾에 대한 부담에서 헤어나기 힘들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알리자 셔먼은 이와 같이 여성의 삶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삶의 행로를 찾기 위

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서반응을 보이거나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의 문제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심한 성격문제는 주위 사람들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록 심한 성격문제에서 나타나듯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행동양식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많지만, 제프리 영과 클로스코는 '인생의 덧'이라고 명명하는 인지도식에 따르면다고 설명하고 있다(제프리 영, 클로스코 지음, 최영민 등 옮김, 2004). 이들은 인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 안정감, 타인과의 연대감, 자율성, 자기존중감, 자기표현, 현실적 제한의 여서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 그 욕구들이 어린시절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현재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연결하고 이를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1가지 인생의 덧은 버림받음, 불신과 학대, 취약성, 의존, 정서적 박탈, 사회적 소외, 결함, 실패, 종속, 가혹한 기준, 특권의식 등이다. 더욱이 이들은 이 각각의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 실천해볼 수 있는 방법 혹은 치료기법들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

6) 도시와 달리 농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역사회 일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는 직장 가정 외에 일어나는 지역사회 일, 예컨대 아파트 공동체, 스포츠 클럽, 봉사단 같은 활동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되고 개인이 선택했다라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을 노인을 위한 잔치, 지역사회 축제 등 행사 때 특산물 판매나 식사제공 등과 같은 활동에 거의 대부분 참여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40~50대가 마을에 1~2명 정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을 이장과 같은 자리도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일에 소극적이거나 참여가 적으면 마을사회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용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일생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장애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성격 특성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농업인 대다수(77.5%)는 50대 이상으로 초졸(77.1%), 중졸(13.5%)의 학력자가 대부분이다(농림부, 2003). 이는 대개 가정의 경제적 형편 혹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데 장애를 경험하였고,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과는 다른 생애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독특한 행동양식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들이 살고 있는 농촌사회의 외적 강제들은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생애경험을 강화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 문제, 특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 해결 등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제해결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진단단계로서 사전에 여성농업인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개별 주체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변화를 주도하며 스스로 삶을 적응시켜가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은 새로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자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 as an effective learner),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 및 독립성을 위한 어려운 문제를 추구하는 태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박영태·현정숙, 2006)는 점에서 볼 때 여성농업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효율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7)'의 11가지 유형과 특성

인생의 덧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는 어렸을 적 가족이나 또래 친구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 시작된다. 과거에 우리는 버림받거나 비난받거나 과보호 받았을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다양한 손상을 받았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덧은 우리들 자신의 일부가 되어 일생을 조종하게 된다. 인생의 덧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를 결정하며 불안과 슬픔,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이상적 결혼, 주변 사람들의 존경, 직업에서의 성공 등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을 즐길 수 없고 자신이 한 일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고통을 되풀이해서 경험한다는 것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핵심적인 발견의 하나이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반복강박이라 한다. 지나친 통제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남들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둔다. 이것은 당혹스러운 현상이다.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왜 고통을 재연하는가? 왜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하지 않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한다.

인생의 덧이란 바로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도식'이라 한다. 따라서 인생의 덧은 인지치료에 근거하고 있다. 도식은 우리들 자신과 세계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써 어린 시절에 학습된 것이다. 이 도식은 자기 자신에 관한 느낌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관한 확신

7) 인생의 덧에 대한 설명과 측정방법 등은 모두 제프리 영과 클리스코의 저서를 최영민 등이 옮긴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2004, 열음사'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 해도 거기에 매달리고 만다.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의 믿음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며 편안함과 친숙함을 준다. 마치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식 혹은 인생의 덧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생의 덧 혹은 도식의 유형은 크게 11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버림받음, 불신과 학대, 의존성, 취약성, 정서적 박탈감, 사회적 소외감, 결함, 실패, 종속 혹은 복종, 가혹한 기

준, 특권의식 등이다. 이는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감, 타인과의 연대감, 자율성, 자존심, 자기표현, 현실적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이며, 인생의 덧은 이러한 자기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과 관련된다. 인생의 덧은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며, 자기 파괴적이고, 살아남기 위해 투쟁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패턴이 고정적이어서 우리의 의지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표 1〉 11가지 인생의 덧의 모습

요 구	덧의 종류	덧의 의미
기본적인 안전감	① 버림받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② 불신과 학대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자 율	③ 취약성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몰라
	④ 의존성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
타인과의 연대감	⑤ 정서적 박탈감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⑥ 사회적 소외	나는 적합하지가 않아
자존심	⑦ 결 함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⑧ 실패	난 실패자인 것 같아
자기표현	⑨ 종 속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⑩ 가혹한 기준	아직 많이 부족해
현실적 한계	⑪ 특권 의식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1) 버림받음

버림받음이라는 덧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고 영원히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살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다. 가까운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 버림받을 거라고 느끼는 등 어쨌든 혼자 남겨지게 될 것이라 느낀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며 역설적으로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게 된다. 또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하거나 화를 낸다.

2) 불신과 학대

불신과 학대의 덧이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해치거나 학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덧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신의 벽 뒤에 숨게 된다. 결코 어느 선 이상 접근하게 놔두지 않으며 남의 의도를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전적으로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거나 하며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대감과 복수심을 품게 된다. 세상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관련된 인생의 덧에는 의존과 취약성이 있다.

3) 의 존

만약 의존의 덫에 걸려 있다면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마치 목발이나 되는 것처럼 의존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원한다. 아마 어렸을 때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가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생활을 좌우하게 한다.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움츠러들며 계속 뒤로 물러설 뿐이다.

4) 취약성

취약성이라는 덫에 걸리면 재앙, 즉 자연재해, 범죄, 질병, 경제적 파산 등이 닥치리라는 두려움 속에 산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는 어린 시절, 누군가가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강박관념을 심어 놓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혹은 부모가 당신의 안전에 대해 너무 걱정된 나머지 과보호했을 수도 있다. 공포는 지나치고 비현실적이지만 이미 그 공포에 지배된 당신은 오직 안전에만 힘을 쏟게 된다. 이러한 공포는 불안, 발작, AIDS, 정신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주위까지도 뻗어 나가며 혹은 파산과 같은 재정적 취약성이 초점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비행기 추락, 강도, 지진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며 이에 대한 취약성을 가질 수도 있다.

5) 정서적 박탈

정서적 박탈감이란 사랑받으려 하는 욕구가 결코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거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 스스로가 타인에게 냉정하고 인색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분노와 외롭고 상처받은 느낌 사이를

오가게 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분노는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 정서적 박탈감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할 경우 이들이 진료실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외로움은 여전히 이 안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그들의 정서적인 단절감. 이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같다.

6) 사회적 소외

사회적 소외는 친구와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 남과 다르다는 느낌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덫에 걸리면 어린 시절 또래에게 배척당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뭔가 남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유별난 특징이 있었을 수 있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회피하는 태도로 덫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집단 속에서 사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친구 사귀는 것을 회피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못생겼거나, 성적 매력이 없거나, 지위가 낮거나 화술이 형편없거나, 따분하거나, 그 외에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느낀다. 어렸을 때 거부당한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덫은 항상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덫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교적인 기술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 덫은 일대 일의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파티나 수업 시간, 회의, 혹은 직장 등 단체 활동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단체에 속하지 못한 불안함에 그저 자신이 소속될 곳을 끊임없이 찾아다닌다.

7) 결 함

결함이란 당신 스스로가 내적으로 결점과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충분히 가까워지게 되면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덫이

다. 이러한 결함은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린 시절,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여러 결점으로 인해 비난받아왔고 그래서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자책하며 컸을 지도 모른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두려워한다.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며 거절당할 것을 홀로 예상하는 것이다.

8) 실 패

실패란 성과를 내야 할 분야, 즉 학교, 직장, 운동 등에서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믿음이다. 어린 시절 아마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학습장애가 있었거나 읽기와 같은 중요한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 있다. 언제나 다른 아이들이 더 우수했고 당신은 '멍청하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개으르다'고 놀림 받았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실패를 과장하고 실패를 초래할 행동을 함으로써 덧을 지속시킨다.

9) 종속 혹은 복종

종속 또는 복종의 덧에 걸려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희생하고 남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둔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죄책감 - 자신을 우선함으로써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 때문이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어린시절에 가까운 사람, 아마도 부모님이 당신을 굴복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덧은 어른이 된 후에도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종속되게 하거나, 이런 저런 관계 속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요구만 하고 보답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10) 가혹한 기준

가혹한 기준의 덧에 걸리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극단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처참할 정도로 노력한다. 행복과 기쁨, 건강, 성취감, 대인 관계에서의 만족을 희생한 채 지위, 돈, 성취, 질서, 인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며 매사를 간간하게 따지려 들 것이다. 어린시절에 최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으며 최고가 아니면 모조리 실패라고 배웠을 당신이기엔 자신이 하는 일은 항상 불만족스러울 뿐이다.

11) 특권 의식

특권의식의 덧은 삶의 현실적인 한계를 수용하는 능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 덧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즉각적으로 표현하거나 행하거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반적인 합리성, 실현 가능성, 시간과 인내, 그로 인해 남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 같은 것들은 무시하며 자기 규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덧에 걸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버릇없이 자라난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용하라는 요구가 없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매우 화를 내곤 했다.

3.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측정방법 및 조사도구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표 2>와 같은 22개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평가기준 점수를 적고, 이를 다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인데, 어린시절과 현재에 느끼는 수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11가지 유형별로 각 2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표 3>과 같으며, 답안지 양식은

〈표 4〉와 같은데 ○안의 번호는 문항번호이다. 고, 그 점수가 4점 이상이면 해당되는 인생의 응답자가 기록한 점수 중에서 〈표 4〉의 맨 마 뒷에 걸쳐있다고 판단한다. 지막 칸에는 해당 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적

〈표 2〉 인생의 덧을 측정하는 질문지

질 문	어린 시절	현 재
① 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람들에게 매달린다.		
②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 나를 떠날까봐 굉장히 걱정한다.		
③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경계하는 편이다.		
④ 사람들이 나를 해치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에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		
⑤ 보통 사람들보다 병에 걸리거나 다른 나쁜 일이 내게 닥칠까봐 더 많이 걱정하는 편이다.		
⑥ 파산해서 거지가 되거나 남에게 의탁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⑦ 살아가는 동안 혼자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⑧ 부모님과 나는 서로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⑨ 나를 돌봐주거나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깊이 염려해 줄 사람이 없었다.		
⑩ 사람들이 이해와 공감, 지도, 충고, 지지에 대한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준 적이 없다.		
⑪ 나는 소속감이 없다. 나는 남들과 다르고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⑫ 나는 따분하고 싫증나는 사람이다. 사교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⑬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⑭ 다른 사람들의 사랑, 관심,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⑮ 일(학업)에 있어서 남들보다 능력이 없다.		
⑯ 남들보다 재능, 지적 능력, 경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보복하거나 나를 거부할 것이다.		
⑱ 사람들은 내가 남들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⑲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		
⑳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거나 즐길 시간이 없다.		
㉑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정상적인 규칙이나 관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㉒ 나는 일상적이고 지루한 일들을 완수해 내거나 내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했다.		

〈표 3〉 인생의 덧 측정 질문에 대한 평가기준: 6점 척도

완전히 나와 다르다.	1	어느 정도는 나와 일치한다.	4
대부분 나와 다르다.	2	대부분 나와 일치한다.	5
나와 다른 면보다 일치하는 면이 좀 더 많다.	3	나와 완전히 일치한다.	6

〈표 4〉 인생의 덧 답안지

인생의 덧	어린시절	현 재	어린시절	현 재	가장 높은 점수
버림받음	①	①	②	②	
불신과 학대	③	③	④	④	
취약성	⑤	⑤	⑥	⑥	
의 존	⑦	⑦	⑧	⑧	
정서적 박탈	⑨	⑨	⑩	⑩	
사회적 소외	⑪	⑪	⑫	⑫	
결 함	⑬	⑬	⑭	⑭	
실 패	⑮	⑮	⑯	⑯	
중 속	⑰	⑰	⑱	⑱	
가혹한 기준	⑲	⑲	⑳	⑳	
특권의식	㉑	㉑	㉒	㉒	

Ⅲ.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8세이며 농사경력 은 27.2년, 결혼기간은 29.1년, 자녀수는 평균 3 명이고 맏이의 나이는 28.6세이다. 여기에서 맏 이의 나이를 물은 것은 대개 생애주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볼 때 주로 맏이

살펴보는 항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맏이의 연 령과 혼인 여부로 그 사람의 생애주기가 영향 을 받기 때문⁸⁾이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주로 고졸이 57.2%로 높고 대졸이상도 19.0%나 된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초교졸업 내지는 중학교 졸업 수 준임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단체 임원들은 일 반 여성농업인에 비하여 학력 수준이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장지는 대다수 농촌이 많았고, 주작목으로는 벼, 과수, 채소 등이었다.

8) 이에 대해서는 가족의 생성과 발달, 사람의 생애주기 구분 등에 관련된 자료들 참조.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구 분		백분율
나 이	52.8세	4.19	학 력	초·중졸	23.8
농사경력	27.2년	5.81		고 졸	57.2
결혼기간	29.1년	4.60	성장지	대졸이상	19.0
				농 촌	81.0
자녀 수	3.0명	.81	주작목	도 시	19.0
				벼	33.3
말이 나이	28.6세	5.40		채 소	14.3
				과 수	23.8
				축 산	4.8
				복합영농 등 기타	23.8

2.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 측정 결과

인생의 덧을 측정하는 22개 문항의 어린시절과 현재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결과는 〈표 6〉과 같다. 22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는 가혹한 기준에 해당하는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적

당한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19번)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거나 즐길 시간이 없다(20번) 문항의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현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많은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 모습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표 6〉 22개 측정항목에 대한 어린시절 및 현재 수준 평가결과

인생의 덧	어린시절	현 재	어린시절	현 재	가장 높은 점수
버림받음	① 2.09(.31)	① 1.87(.25)	② 2.22(.23)	② 2.65(.38)	2.65(.38)
불신과 학대	③ 2.09(.22)	③ 2.35(.26)	④ 2.36(.28)	④ 1.77(.20)	2.36(.28)
취약성	⑤ 2.73(.28)	⑤ 3.04(.35)	⑥ 2.65(.34)	⑥ 2.43(.32)	3.04(.35)
의 존	⑦ 2.41(.33)	⑦ 2.30(.32)	⑧ 2.43(.35)	⑧ 2.45(.35)	2.45(.35)
정서적 박탈	⑨ 2.00(.19)	⑨ 2.35(.33)	⑩ 2.23(.23)	⑩ 2.61(.31)	2.61(.31)
사회적 소외	⑪ 1.86(.24)	⑪ 1.68(.29)	⑫ 2.45(.25)	⑫ 2.22(.27)	2.45(.25)
결 함	⑬ 1.95(.21)	⑬ 2.00(.30)	⑭ 1.91(.32)	⑭ 1.65(.24)	2.00(.30)
실 패	⑮ 2.32(.30)	⑮ 2.35(.26)	⑯ 2.41(.34)	⑯ 1.77(.25)	2.41(.34)
종 속	⑰ 2.64(.28)	⑰ 1.87(.25)	⑱ 2.62(.25)	⑱ 2.91(.34)	2.91(.34)
가혹한 기준	⑲ 2.90(.26)	⑲ 3.83(.35)	⑳ 2.52(.29)	⑳ 3.74(.32)	3.83(.35)
특권의식	㉑ 1.71(.20)	㉑ 2.05(.27)	㉒ 2.48(.25)	㉒ 2.48(.31)	2.48(.31)

주) ○안의 숫자는 질문지 문항 번호, 숫자는 응답자의 자기 평가수준(1~6)의 평균 점수, ()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다음으로 <표 7>은 각 측정문항별로 인생의 덧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는 수준인 '4점(어느 정도는 나와 일치한다)' 이상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이다.

문항별로 보면 '버림받음'에 속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 나를 떠날까봐 굉장히 걱정한다(2번)의 현재에 해당하

는 사람, 취약성의 보통 사람들보다 병에 걸리거나 다른 나쁜 일이 내게 닥칠까봐 더 많이 걱정하는 편이다(5번)의 현재, 파산해서 거지가 되거나 남에게 의탁하게 될까봐 걱정한다(6번)의 어린시절과 현재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율이 다소 높다.

<표 7> 22개 측정항목에 대한 어린시절 및 현재의 수준이 4점 이상인 비율(%)

인생의 덧	어린시절 점수가 4점 이상인 비율	현재 점수가 4점 이상인 비율	어린시절 점수가 4점 이상인 비율	현재 점수가 4점 이상인 비율	가장 높은 점수가 4점 이상인 비율
버림받음	① 21.7	① 21.7	② 4.3	② 34.8	43.5
불신과 학대	③ 9.1	③ 21.7	④ 22.7	④ 4.5	39.1
취약성	⑤ 22.7	⑤ 52.2	⑥ 40.0	⑥ 34.8	73.9
의존	⑦ 22.7	⑦ 30.4	⑧ 23.8	⑧ 22.7	52.2
정서적 발달	⑨ 27.3	⑨ 26.1	⑩ 9.1	⑩ 26.1	34.8
사회적 소외	⑪ 4.8	⑪ 9.1	⑫ 9.1	⑫ 13.0	26.1
결함	⑬ 13.6	⑬ 17.4	⑭ 13.6	⑭ 17.4	39.1
실패	⑮ 18.2	⑮ 26.1	⑯ 22.7	⑯ 9.1	52.2
중속	⑰ 22.7	⑰ 17.4	⑱ 19.0	⑱ 43.5	60.9
가혹한 기준	⑲ 38.1	⑲ 56.5	⑳ 26.1	㉑ 65.2	78.3
특권의식	㉒ 4.8	㉒ 9.1	㉓ 19.0	㉓ 30.4	39.1

의존성의 살아가는 동안 혼자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7번)의 현재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았다. 또한 중속의, 사람들은 내가 남들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18번)의 현재에 4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43.5%로 높다. 아울러 가혹한 기준의 19번, 20번의 어린시절과 현재에 4이상의 수준인 사람의 비율이 높다. 특히 현재에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고 보인다. 또한 특권의식을 나타내는 나는 일상적이고 지루한 일들을 완수해 내거나 내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했다(22번)에도 4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30.4%

로 약간 높았는데 이들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자신들의 감정 조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항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 11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역시 <표 7>의 맨 오른쪽 칸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치로 보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4점 이상인 경우 그런 심리적 덧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판단하는데 특히 취약성, 의존성, 실패, 중속, 가혹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밀착된 인간관계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상대적으로 제지당하면서 생활을 영위해왔으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몰라 염려스러워하는 마음과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는 의존감,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종속의 경향과 아직 스스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가혹한 기준이 여성농업인 대표들의 심리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속과 가혹한 기준은 자기표현에 해당하는 성장요구라는 점에서 자신의 표현을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농촌사회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인생의 덧' 측정항목 사이의 심리적 장애 경험 관련성

어린시절과 현재수준 평가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표 8>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보복하거나 나를 거부할 것이다(17번),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19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거나 즐길 시간이 없다(20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8> 어린시절과 현재 수준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구 분		빈 도	시 기	평균(S.D.)	t
종 속	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22	어린시절	2.64(1.33)	2.20*
			현 재	1.91(1.31)	
가혹한 기준	⑲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	21	어린시절	2.90(1.18)	-3.40**
			현 재	3.86(1.71)	
	⑳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거나 즐길 시간이 없다.	23	어린시절	2.52(1.41)	-3.38**
			현 재	3.74(1.54)	

주) *: p<0.05, **: p<0.01

심리적 장애를 측정하는 항목간 Pearson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9>와 같이 나타나는데, 가로축은 어린시절이며, 세로축은 현재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3번(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경계하는 편이다)과 4번(사람들이 나를 해치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와 같은 어린시절의 불신과 확대 경험은 현재의 버림받음, 취약성, 사회적 소외, 결함과 실패 등에 관련된 심리적 장애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시절 다른 사람들의 사랑, 관심,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경험(14번)은 현재의 버림받음, 가혹한 기준에 관련되고,

나를 돌봐주거나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깊이 염려해줄 사람이 없다(9번)는 어린시절의 경험은 버림받음, 정서적 박탈, 가혹한 기준 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19번)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현재의 취약성, 결함, 가혹한 기준과 상관이 있었다. 반면에 파산해서 거지가 되거나 남에게 의탁하게 될까봐 걱정(6번)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신을 따분하고 싫증나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사교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12)는 현재의 경험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9> 어린시절과 현재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현재 → 어린시절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①			.42*	.62**					.44*			.43*			.43*								
②	.67**	.48*	.55**	.76**								.50*		.50*		.47*							
③																							
④																						.48*	
⑤		.55**		.44*												.49*		.49*					
⑥						.65**																	
⑦																							
⑧																							
⑨									.51*														
⑩																							
⑪			.46*																				
⑫						-.47*						.52*											
⑬													.52*							.46*	.45*		
⑭	.52*		.58**	.62**																			
⑮			.51*	.61**																			
⑯		.48*		.52*									.60**									.47*	
⑰			.44*											.56**								.49*	
⑱	.49*			.51*														.53*				.43*	
⑲															.48*					.66**			
⑳									.52*											.57**			
㉑	.55*																					.57*	
㉒										.48*												.47*	.60**

주) *: p<0.05, **: p<0.01, 어린시절과 현재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계수만 표시함

4.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닻'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게 많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연령, 농업종사 경력, 결혼기간, 자녀수, 딸이 나이, 학력, 성장지, 주 작목 등만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조건상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실패 및 성공의 경험, 형제자매 등 자세한 변인을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심리적 장애 경험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령과 학력 외에 농업종사경력과 결혼기간, 자녀수, 딸이 나이 등은 모두 농촌사회 생활기간과 관련이 된다. 또한 주 작목은 농업종사의 업종에 해당한다. 성장지는 어린 시절의 생활환경에 대한 단초적인 정보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농업 또는 농촌생활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일반적인 변인을 선정하였다.

1) 연령과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닻'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6세~6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50세 이하가 33.3%이었다. 대개의 경우 50세부터 50대에 편입하여 분석하나, 여기에서는 사례수의 편포를 완화하기 위하여 50세

이하와 51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10〉을 보면 50세 이하에서는 취약성, 중속, 특권의식의 장애를 경험하고, 51세 이상에서는 취약성, 가혹한 기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부담이 많은 반면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은 데서 오는 성취감 추구에서 자신감을 갖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반대로 51세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신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연 령		
	50세 이하	51세 이상	전 체
버림받음	57.2	28.5	38.0
불신학대	57.2	21.4	33.3
취약성	71.5	71.4	71.4
의 존	57.2	42.8	47.5
정서 박탈감	57.2	14.2	28.6
사회적 소외	28.6	14.2	19.1
결 함	42.9	28.6	33.4
실 패	42.9	50.0	47.5
중 속	71.5	57.1	62.0
가혹한 기준	57.2	85.7	76.2
특권의식	71.5	21.4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표 11〉은 연령별로 심리적 장애(인생의 덧)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한 것이다. 11가지 유형 중에서 정서적 박탈감, 특권의식이 50세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

으로 장애경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령별 심리적 장애(인생의 덧)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구 분	성장지	빈 도	평균(S.D.)	t
정서적 박탈감	50세 이하	7	4.00(1.16)	2.34*
	51세 이상	14	2.71(1.20)	
특권의식	50세 이하	7	4.14(1.46)	2.93**
	51세 이상	14	2.43(1.16)	

주) *: p<0.05, **: p<0.01

2) 농업종사경력과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농업종사경력은 19년에서 40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25년 이하의 경력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8.1% 이다. 대개의 직장에서 25년 정도 근무하면 퇴직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대표의 농업종사경력을 25년

이하와 26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표 12〉와 같이 2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6년 이상의 경력자들에게서는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t 검정 결과 〈표 13〉과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농업종사경력과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농업종사경력		
	25년 이하	26년 이상	전 체
버림받음	25.0	46.2	38.0
불신학대	37.5	30.8	33.3
취약성	75.0	69.2	71.4
의 존	50.0	46.2	47.5
정서 박탈감	37.5	23.1	28.6
사회적 소외	0.0	30.8	19.1
결 함	25.0	38.5	33.4
실 패	37.5	53.9	47.5
중 속	62.5	61.6	62.0
가혹한 기준	75.0	77.0	76.2
특권의식	37.5	38.5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표 13〉 농업종사경력별 심리적 장애(인생의 덧)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구 분	성장지	빈 도	평균(S.D.)	t
사회적 소외	25년 이하	8	2.13(0.64)	- 2.44*
	26년 이상	13	3.31(1.55)	

주) *: p<0.05

3) 결혼기간과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은 23년에서 40년까지 분포한다. 대개의 자녀가 혼인하여 독립하게 되

는 시점이 30세 전후라는 점에서 결혼기간도 30년을 전후로 구분하였다. 29년까지가 57.1% 이고, 30년 이상이 42.9%이다.

〈표 14〉와 같이 사회적 소외는 전 변인에 결

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들 조사대상자가 이미 조직체의 직위를 맡고 있는 임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30년 이상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결합, 취약성, 종속의 장애 역시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버림받음, 불신학대의 장애경험은 29년 이하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권의식도 결혼기간이 29년 이하인 경우에서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의 경험 수준은 결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과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결혼기간		
	29년 이하	30년 이상	전 체
버림받음	50.0	22.2	38.0
불신학대	41.6	22.2	33.3
취약성	66.7	77.8	71.4
의 존	50.0	44.4	47.5
정서 박탈감	33.3	22.2	28.6
사회적 소외	8.3	33.3	19.1
결 합	25.0	44.4	33.4
실 패	41.7	55.5	47.5
종 속	50.0	77.7	62.0
가혹한 기준	75.0	77.7	76.2
특권의식	49.9	22.2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4) 자녀수와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자녀수는 2명에서 5명까지 분포한다. 그러나 대체로 최근에 와서 2자녀 정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2정도 갖는 세대와 3명 이상을 낳은 세대는 어느 정도 구분의 경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수

가 2명인 사람과 3명 이상인 사람을 구분하였다. 자녀수가 2명인 응답자는 28.6% 이었다.

〈표 15〉를 보면, 버림받음, 취약성, 정서 박탈감, 실패, 종속, 가혹한 기준, 특권의식이 2명의 자녀를 가진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5〉 조사대상자의 자녀수와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자녀 수		
	2명	3명 이상	전체
버림받음	16.7	46.7	38.0
불신학대	33.3	33.3	33.3
취약성	50.0	80.0	71.4
의존	50.1	46.7	47.5
정서 박탈감	16.7	33.3	28.6
사회적 소외	16.7	20.0	19.1
결함	33.4	33.3	33.4
실패	33.4	53.4	47.5
종속	50.0	66.7	62.0
가혹한 기준	66.7	79.9	76.2
특권의식	16.7	46.7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4

5) 말이 나이와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자녀 중 말이의 나이는 생애주기애 따른 가족 발달수준 구분에서 가족의 확대기와 축소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개의 자녀가 혼인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시점이 30세 전후라는 점에서 말이의 나이도 30세를 전후로 구분하였다. 말이의 나이는 17세에서 40세까지 분포한다. 말이의 나이가 30세 이

하인 사람이 61.9%, 31세 이상인 사람이 38.1%이다.

〈표 16〉을 보면, 말이의 나이가 30세 이하인 집단에서 버림받음, 불신학대, 특권의식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고, 30세 이상인 집단에서는 취약성, 의존, 결함, 실패, 종속, 가혹한 기준 등의 장애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표 16〉 조사대상자의 말이 나이와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말이의 나이		
	30세 이하	31세 이상	전체
버림받음	46.2	25.0	38.0
불신학대	38.5	25.0	33.3
취약성	69.3	75.0	71.4
의존	39.2	50.0	47.5
정서 박탈감	30.8	25.0	28.6

구 분	말이의 나이		
	30세 이하	31세 이상	전 체
사회적 소외	15.4	25.0	19.1
결 함	30.8	37.5	33.4
실 패	46.2	50.0	47.5
중 속	53.9	75.0	62.0
가혹한 기준	69.3	87.5	76.2
특권의식	46.2	25.0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6) 학력과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초중졸에서 대학원졸까지 분포한다. 이들의 학력은 일반적인 여성농업인보다 높다. 학력은 초중졸과 고졸을 경계로 구분하였다. 초중졸 이하가 23.8%이고 고졸 이상이 76.2%이다.

사회적 소외, 결함, 실패, 중속, 가혹한 기준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고졸이상인 집단에서는 취약성, 의존, 정서적 박탈감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표 17〉을 보면 초·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표 17〉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학 력		
	초·중졸이하	고졸이상	전 체
버림받음	40.0	37.5	38.0
불신학대	40.0	31.3	33.3
취약성	60.0	75.1	71.4
의 존	20.0	56.3	47.5
정서 박탈감	20.0	31.4	28.6
사회적 소외	40.0	12.6	19.1
결 함	60.0	25.1	33.4
실 패	60.0	43.8	47.5
중 속	80.0	56.4	62.0
가혹한 기준	80.0	75.1	76.2
특권의식	40.0	37.6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7) 성장지와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성장지는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였을 때 농촌이 81.0%로 많았다.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표 18>과 같이 버림받음, 불신

학대, 사회적 소외, 결함, 특권의식의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의존, 가혹한 기준의 장애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조사대상자의 성장지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성장지		
	농 촌	도 시	전 체
버림받음	41.2	25.0	38.0
불신학대	35.3	25.0	33.3
취 약 성	70.6	75.0	71.4
의 존	41.2	75.0	47.5
정서 박탈감	29.4	25.0	28.6
사회적 소외	23.5	0.0	19.1
결 함	41.2	0.0	33.4
실 패	47.1	50.0	47.5
중 속	70.6	25.0	62.0
가혹한 기준	70.6	100.0	76.2
특권의식	47.1	0.0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성장지에 따른 심리적 장애 경험의 차이가 의미 있는가를 분석해본 결과 ‘결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등분산은 가정되지 않았으며, 도시지역에서 성장

한 사람의 빈도수가 10 미만이므로 t 검정의 통계적 의미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하나의 경향성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9> 성장지별 심리적 장애(인생의 덧)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구 분	성장지	빈 도	평균(S.D.)	t
결 함	농 촌	17	3.06(1.64)	3.85**
	도 시	4	1.25(.50)	

주) **: p(0.01)

8) 주 작목과 심리적 장애인 ‘인생의 덧’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주 작목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대개 벼 재배 농가의 경우 다양한 작물을 동시에 재배한다는 점에서 벼 재배 농가와 복합영농 농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채소, 과수, 축산 등의 작목을 좀 더 전업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벼와 복합영농 재배농가는 52.4%이었으며, 그밖에 채소, 과수, 축산, 전작 등의 농가는 47.6%이었다.

〈표 20〉을 보면, 벼 재배 농가와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의 사람들에게서는 취약성, 의존, 정서 박탈감, 사회적 소외, 실패, 종속, 가혹한 기준의 장애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채소·과수·축산·전작 농가의 여성농업인들에게서는 버림받음의 장애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낮추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하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시도해볼 만하다.

〈표 20〉 조사대상자의 주 작목과 인생의 덧의 관계

단위: %

구 분	주작목		
	벼 및 복합영농	채소·과수·축산·전작	전 체
버림받음	36.4	50.0	38.0
불신학대	36.4	30.0	33.3
취약성	90.9	50.0	71.4
의 존	63.7	30.0	47.5
정서 박탈감	36.4	20.0	28.6
사회적 소외	36.4	0.0	19.1
결 합	36.4	30.0	33.4
실 패	63.7	30.0	47.5
종 속	81.9	40.0	62.0
가혹한 기준	100.0	50.0	76.2
특권의식	36.4	40.0	38.1

주) 숫자는 인생의 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을 의미함.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관심이 거의 없었던 여성농업인 개개인의 심리적 장애 경험을 유형별로 구분한 제프리 영과 클로스코의 11가지 인지도식 유형인 인생의 덧 분류 기준에 따라 측정해본 결과이다.

그 결과 연령 등 몇 가지 변인들에 따라 장애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개 연령과 관련된 농업종사경력, 결혼기간, 만이의 나이 등에 따라서는 대체로 일관된 특성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각 변인의 구분 기준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 경험의 차이인지 하나의 일관된 특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연령별로 볼 때 50세 이하에서는 취약성, 중속, 특권의식의 장애를 경험하고, 특히 정서적 박탈감이나 특권의식이 장애 경험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인정되었다. 농업종사경력에서는 25년 이하의 집단에서 취약성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29년 이하인 집단에서 버림받음, 불신학대, 정서 박탈감, 특권의식의 장애경험이 많았다. 만이의 나이에서는 30세 이하인 집단에서 버림받음, 불신학대, 정서 박탈감, 특권의식의 장애경험이 높았다.

또한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학력, 자녀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에서 취약성, 의존, 정서 박탈감 등의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젊을수록 자녀수가 2명인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보면, 자녀수가 2명인 집단에서는 장애경험이 3명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주작목의 경우에도 벼 재배 농가나 복합영농 농가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채소·과수·축산·전작 등 전업농가의 경우를 젊은 연령층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집단에서는 버림받음, 특권의식의 장애 등이 나타났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각 변인의 공통 요소로 적용이 가능한 연령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고 벼가 아닌 작목을 전업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의 여성들에게서 정서적 박탈감이나 특권의식 장애 등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농업의 특성 혹은 농촌사회 생활경험으로 비롯된 특성인지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성장지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에 취약성, 의존, 실패, 가혹한 기준 등이 장애경험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농촌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으로 자신을 통제해가는 것은 아닌가, 또 혹은 도시에서 자란 경험으로 인하여 농촌사회 생활에서도 좀 더 자신의 기준을 높이 잡아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결함의 장애를 더 경험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언

이 연구는 그동안 조직 혹은 집단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농업인' 혹은 '여성농업인'을 좀 더 개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는데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로서 연령도 젊고 학력도 높고 대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여성농업인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은 제한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대표들이 주도하는 단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생활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린시절의 심리적 장애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심리적 장애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단순하게 제프리 영과 클로스코의 인지도식 유형을 따라 현재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먼 길에 겨우 첫 발을 디디는 단계이다. 즉 파일럿 테스트에 불과하다. 또한 왜 제프리 영과 클로스코의 모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단지 연구자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심리적 장애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복잡한 데 비해서 이들의 모

형은 매우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장애경험 유형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심리적 장애를 스스로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행동적 대안이 있다면, 그만큼 쉽게 심리적 장애를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측정모형이 우리의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적합한 모형인지, 또한 대상을 달리 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여러 번의 연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은 자신들의 생애경험에서 기초학습의 상실과 그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향후 일반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다면 아마도 그 특성이 좀 더 분명하고 일관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계획에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 속에서 평생학습자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또한 이에 관련되는 변인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대개 결혼으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며 그로부터 농촌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촌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도, 어린시절의 생활경험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사회에 생활하는 경험들이 심리적 장애의 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V. 참고문헌

- 김경미 등. (2004). **여성농업인 역할 유형별 제도적 지원방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공주대학교·농협대학,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1년차 보고서.
- 김경미. (2006). **여성의 농업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방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사)생활개선중앙회,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보고서.
- 농림부.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박영태·현정숙. (2006). **자기주도학습력의 이해**. 동아대학교출판부.
- 알리자 서먼. (2004). **여성을 위한 비즈니스 파워 툴**(이미숙 역). 한스미디어.
- 에노모토 히로아키. (2005). **나를 찾아 떠나는 자기분석여행**(신정길 등 역). 시그마 프레스(주).
- 제프리 E. 영. 자넷 S. 클로스코. (2004).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Reinventing your life**(최영민·김봉석·이동우 역). 열음사. (2006년 4월 15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